

## 사례(25) TOK

### -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개발정신 -

- 동사는 1938년에 창업, 1964년 업계 처음으로 플라스틱베어링을 개발한 이후, 베어링, 클러치, 터퍼 등 3,000종의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음
- 동사는 동경의 모노즈쿠리 기업으로서 가구나 가전 등 여러 용도의 제품개발을 통하여 폭넓은 산업과의 접점을 가진 가운데, 축적된 설계력과 대응력, 그리고 종합력을 강점으로 하고 있음
- 동사의 진취적인 정신은 모노즈쿠리면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의 선두주자로서 개발 및 판매를 뒷받침하는 사원들이 각각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직장풍토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
- 도쿄도 이타바시구에 있는 TOK 본사의 쇼룸에는 어딘가 색다른 꽃꽂이가 방문객을 맞고 있음
- 꽃에 비유한 금속봉이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어, 마치 꽃받침 위에 아름답게 꽃꽂이된 모양을 연출하고 있음. 기구부품의 신시리즈 SR시리즈를 이와 같은 연출로 어필하고 있음

#### □ 모든 동작을 제공

- 1964년 업계 처음으로 플라스틱베어링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TOK. 상식을 뒤집어온 개발정신이 현재도 계승되고 있음
- 이제까지 없었던 움직임을 슬로건으로 하는 동사. 도쿄도 이타바시구에서 1938년에 창립, 2017년에 80년을 맞음
- 설립 당시는 금속베어링 제조가 중심이었으나, 가구 업체로부터의 수요와 수지소재의 개발 등 시대적인 배경도 있어, 1964년에 당시는 드물었던 플라스틱베어링 분야에 진출함

- 현재 동사의 개발제품은 베어링, 클러치, 댐퍼(damper) 등 여러 품목에 걸쳐 상품 아이템은 3,000종에 이릅니다
- 그 중에서도 베어링은 현재 500품종 이상 유통되고 있어, 저비용으로 고성능 폴리아세탈 수지를 비롯하여, 수많은 재질을 취급하고 있음. 가구와 사무실 책상의 수납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DR-22는 잘 팔리는 제품임
- 기존 제품도 생산하면서 신제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점이 동사가 지닌 매력의 하나임. 어딘가 색다른 금속 꽃꽂이를 표현한 SR시리즈의 머리문자는 고객의 니즈에 대응한다는 「Special Requirement」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음
- 꽃꽂이에 사용된 SRX는 한손으로 집어넣을 정도의 조작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유니트 기구부품임. 유니트의凸측인 선단을 凹측의 구멍에 넣어, 볼펜의 노크와 같이 미는 정도로 확실하게 고정가능하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쉬운 사용방법임

#### □ 시대와 함께, 동경의 모노즈쿠리

- 동사의 국내 생산체제는 동경 본사에 설계부문으로서 약 20명을 두고, 야마나시현의 마더공장으로서 전개하고 있음
- 야마나시 공장에서는 제조공정의 일부 로봇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함
- 회사 근무를 거쳐 2015년에 30대의 젊은 사장에 취임한 요시카와 게이스케(吉川 桂介) 사장
- 자사의 강점을 가구나 가전 등 여러 용도의 제품개발을 통하여 폭넓은 산업과의 접점을 가진 가운데, 축적된 설계력과 대응력, 그리고 종합력이라고 말함
- 기구부품을 폭넓게 전개하는 한편으로, 요시카와 사장은 사내 자체가 베어링과 클러치, 댐퍼를 사업의 3개 기둥으로 한 「절반의 확신에 가까운 분위기」에 위기감을 느낀 적도 있다고 밝힘
- 사장 취임 2년 후에는 사명을 과거의 토크베어링에서 이미 브랜드명으로 침투하고 있던 TOK로 변경
- 특히 TOK에는 창업자인 요시카와 도키조(吉川 時蔵)의 이름과 도쿄의 모노즈쿠리 기업이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음

## □ 노동방식 개혁의 선두에

- 진취적인 정신은 모노즈쿠리(장인정신)만이 아님
  - 개발 및 판매를 뒷받침하는 직원들이 각각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직장 풍토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  - 2018년에 새로운 본사가 완성된 것을 계기로 식당과 사무실에서 자리를 자유롭게 이동해서 쓸 수 있는 프리 어드레스제도를 도입했음
  - 1년 전에는 도쿄도가 기치를 내건 시차BIZ에 참가. 통상적인 근무개시 시간을 정시인 8시 30분, 또는 7시 30분, 9시 30분, 10시 30분 등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근 제도를 채택했음
  - 그 결과 작업 스타일 부문에서 「시차BIZ추진상」을 수상. 수상의 대다수가 대기업인 가운데, 중소기업의 향후 노동방식을 모색하는 자세를 보여줌
-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주택설비와 의료기기 분야임
  - 문 개폐의 완충을 완화하는 댐퍼 및 자기공명단층촬영장치(MRI)에 비자성 베어링을 제공하는 안 등, 신제품개발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되고 있음
  - 2020년 연결 매출액 목표도 50억 엔으로 설정, 지역에 뿌리를 둔 동경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에 도전하고 있음

## 【기업정보】

▽소재지=도쿄도 이타바시구 아즈사와  
1-17-12

▽사장=요시카와 게이스케(吉川 桂介)

▽설립=1938년

▽연결매출액=46억엔(2018년 9월기)

▽홈페이지=<http://tok-inc.com/index.html>

## &lt; 참고자료 &gt;

경제산업성, 『지역미래견인기업』 2019년 1월 4일 <https://meti-journal.jp/p/3740-2/>